

조계종 새 교육원장 무비 스님

인터뷰

조계종 새 포교원장 도영 스님

“승려 자질향상 당면과제”

“군포교 활성화 다각 검토”

목어

사찰 관람료

돈을 안 받으면 안될까? 돈이 없으면 참 불편하다. 하고자 하는 일을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참 불편할 것 같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민생고를 해결하지 못할 수준이라면 더욱 비참해지는 것이 돈이다.



며칠 전 공적인 일로 부산을 간김에 두 곳의 사찰을 방문했는데 한 곳은 관람료를 받는 사찰이었고 다른 한 곳은 관람료를 받지 않는 사찰이었다. 사찰에 참배하면서 관람료를 내고 들어간다는 것이 좋은 것 같다. 국립공원 내에 있는 일부 사찰의 관람료 징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말쟁이 되어 온 터인 만큼 문화재를 보유하지 않는 전통사찰의 관람료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는 마음이다.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구분을 하는 것 같아 그 또한 마음이 편치 않다. 사찰은 사부대중의 신앙도량이다. 스님들이 그 안에서 수도를 하고 대중을 위해 설법을 해 주는 곳이기도 하다. 종교적 의미를 떠나서도 문화재적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곳이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역사가 오래이다 보니 그동안 쌓인 문화적 가치 또한 크고 다른 문화적 면면을 압도한다. 사찰을 어떤 의미로 볼 것인가. 이는 말하지 않아도 불자들에게는 신성한 종교적 도량이다. 이런 도량을 관람료 운운하면서 불거리로 삼아서는 안될 일이다.

불교는 한국의 문화현상이란 이해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문화재라고 가정 하더라도 불교도적인 관점에서 대중들의 그런 인식을 종교적인 신앙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스스로 관람료를 받고 관람의 대상으로 불교를 전락시키는 일은 힘을 합쳐 삼가야 할 일이다.

설령 절구경을 목적으로 찾아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교적인 마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불교도나 절이 해야 할 의무일 것 같다. 관람료가 스님들이 수도를 하거나 신도들에게 법을 설하는데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이근 후 (열린마음클리닉 원장)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다. 소감은 “개인적으로는 교육 분야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오랫동안 종사해 왔고 그런 인연으로 소임을 맡게 됐다. 무거운 돌이든 가벼운 돌이든 최선을 다해 든다는 각오로 임할 생각이다.”

◆가장 비중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승려 자질 향상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각종 승가고시를 엄격히 시행하고 그 밖의 연수교육에도 비중을 두어 스님들의 참여를 유도할 생각이다. 인격은 지식만으로는 갖춰지지 않는다. 하지만 승가고시나 각종 연수 밖에는 승려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우스님께서도 승려교육만이 불교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셨다. 강조하지만 승려 자질 향상에 모든 것을 걸 생각이다.”

각종 승가고시 엄격 시행 승가교육 전통-현대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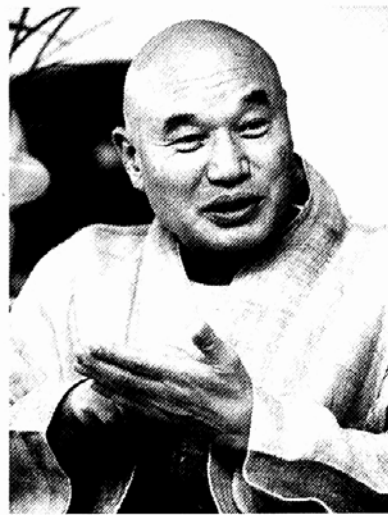
◆승가교육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잡아가고 있다. 평가를 한다던.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다. 오늘날 시대가 요구하는 승가상은 전통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고 전통을 무시해서도 안된다. 강원과 동국대 중앙승가대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종단교육 성패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강원과 중앙승가대, 동국대가 종단 기본교육 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 교육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일본 불교는 명치유신 이후 현대화 작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수 백년 전통을 무심하게 지켜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은 조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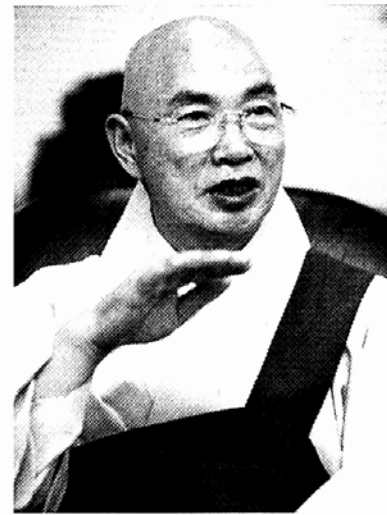
◆중앙승가대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방법이 없는지.



“그 문제는 아직 상황파악이 안돼 생각해볼 수 없었다. 몸으로 부딪치면서 연구할 것이다.”

◆교육원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은. “승려 자질 향상 외에 특별한 것이 있겠는가. 교육원은 그동안 행사교육원을 정착시키고 3급 승가고시까지 시행하는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인 것보다 스님들이 종단이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성과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승가교육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무비 스님은? 1968년 덕진 스님을 은사로 통산스님을 계사로 법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65년 통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4년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원정사범 스님으로부터 진강을 받았으며, 법어사 강원을 비롯해 제암 강원에서 강사와 강주를 지냈다. 1981년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을 거쳐 1997년 조계종립 은해사 승가대학원장과 1999년 조계종 승가고시위원장을 역임했다.



◆99년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한 당사자로서 종단의 포교행정을 책임지게 된 소감은.

“지역 포교 활동을 하면서 포교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며 살았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긴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부딪치면 잘 될 것으로 본다.”

◆종단차원에서 실시하는 신도기본교육이 이달부터 전국 사찰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게 된다. 미비한 것은 없는지.

“신도기본교육에 대한 지방의 스님들이나 신도들의 반응은 아직까지 미약하다. 스님들이나 신도들 모두가 유익하다고 느끼고 꼭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기본교육 수준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도 고민해 볼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한 체계를 세우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직장직능 불교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직

장법회는 훌륭한 포교수단이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계속 지속시켜 나가되 아직 법회가 조직되지 않은 곳은 서둘러 조직되도록 할 것이다.”

◆주5일제와 관련해 구상중인 포교 프로그램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못했지만 포교 연구실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집중 연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사찰들이 사찰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군·청소년 포교에 대한 견해는. “군 포교는 재임기간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다. 새 불자들을 만들 수 있는 곳은 군 밖에 없다. 그리고 군 불자는 청년회, 기사, 가정 불교로 이어진다. 군 포교 활성화는 포교원뿐만 아니라

신도 기본교육 체계화 직장직능법회 확산 노력

모든 불자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할 문제다. 군 법사들 역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 스님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군불교위원회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다.”

◆포교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기업인이 포교를 지원하는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현재의 포교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실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앙차원의 불교실업인회가 언젠가는 있어야 할 것이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a.com

도영 스님은? 1961년 월주 스님을 은사로 금오스님을 계사로 금산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0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법주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금산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1984년부터 지금까지 금산사 주지를 맡아왔다. 1996년 불교텔레비전 이사, 김제 경실련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99년 조계종 재심회계위원을 지냈다.

조계종 - 선학원 '관계 정상화안' 만장일치 통과

제 151회 조계종 임시중앙종회에서 초점의 대상이 되었던 것 중 하나는 6일 안건으로 오를 조계종과 (재)선학원의 관계정상화안 통과여부였다. 조계종 종회의 '명칭변경' '조계종 이사 추천' 요구와 선학원 이사들의 선거권 피선거권, 중무직 임명권 제한등의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계정상화안이 마련돼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양측이 모두 '조계종은 하나되어야 한다' 명제앞에 관계정상화안을 채택했다. 민감한현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6일 오전과 오후 각각 열린 조계종 종회와 선학원 이사회의 현장 분위기를 스키치했다.

조계종 종회 현장

관계회복 중시 채택 결정

일부 의원들이 현재 '재단법인 선학원'으로 되어있는 명칭을 '조계종 선학원'이라고 변경하고 선학원 이사 중 1-2명은 조계종이 추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자구수정을 요구했으나, 대다수 의원들은 23년간 단절되어온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관계 정상화안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또한 어떤 의원은 선학원 사찰의 부실한 현황

과 타종단 스님들이 선학원을 통해 조계종 승려로 행세하는 사례를 얘기하며, 선학원이 조계종에 편입될 경우 조계종 위상에 타격이 된다며 반대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합의안중 이번 관계 정상화안이 가장 조계종의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담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아 결국 채택까지 이르렀다.

종회는 같은날 오후에 열리는 선학원 이사회에서 관계 정상화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일단 관계정상화안은 통과시키고, 선학원 이사회 후 선학원 관련 조계종 종합을 개정하기로 했다.

선학원 이사회 현장

“재단 정체성 회복 기회”

같은날 오후 1시 안국동 중앙선원에서 열린 선학원 이사회는 15명의 이사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오전에 열린 조계종 종회에서 관계 정상화안이 채택됐다는 정보가 입수됐지만 이사들간 의견이 양분된 가운데 투표방식으로 가부를 결정하자는 얘기까지 나와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상황까지 갔다.

선학원 이사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종단에 귀속되면서도 선거권 피선거권

중무직 임명권에 제한을 받는다는 조계종의 관리제한에 대해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특히 한 이사는 선학원이 모든 의무조항을 이행하도록 돼 있지만 권리는 행사하지 못하는 불평등 조약이 아니냐며 반대했다. 또 재단이 새로 사찰을 등록받지 못할 경우 존재 의미가 있느냐는 의견도 개진됐다.

하지만 이사회는 이번이 조계종-선학원의 관계정립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며, 재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결국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김원우 기자 wkwim@buddhapa.com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5일(음 7월 18일) 장충체육관 특설법회장에서 봉행한 “한글대장경완간회향법회”에 동참하신 종단과 종단협의회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정·관계의 지도자를 비롯한 사부대중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동참 해 주신 1만 3천여 사부대중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한글대장경완간회향법회”가 여법하고 성대하게 봉행되어 종단의 3대사업 중 하나인 “역경불사”가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회향법회와 역경불사를 위해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지원해 주신 전국의 교구 본사 및 대소사암과 불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법회장에 자리가 부족해 입장하지도 못하고 먼길을 되돌아 가신 3천여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불자님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과 성원은 앞으로 종단 역경 불사에 크나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대장경완간회향법회

- 봉행위원장: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서정대
- 동국대학교 총장: 송석구
- 집행위원장: 동국역경원장 월순 합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발행·편집인: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인쇄인: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함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디피어' www.buddhapa.com
 불교소문 '마하물'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